

□ 종합의견

이번 지원 사업엔 여러장르의 다양한 게임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상업적인 고려를 적게 한 인디게임류의 작품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믿겨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대작 게임들도 있었고 특히 장르를 넘어서는 게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리듬액션, RPG, 퍼즐RPG, 퍼즐육성, 교육 AR, AI 스포츠 등등의 크로스 오버된 작품들이 많이 보였으며, 특히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의 유명 IP를 활용한 출품작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유저풀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사의 노력이자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녹록치 않은 한국 게임시장에서 영세한 개발사들이 더 상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